

제18차 WEC총회 아르헨티나에서 개최

- 99개국에서 에너지경영자 및 전문가 3,600여명 참가 -

세계에너지회의(WEC)의 제18차 총회가 지난 10. 21-25 동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되었다. '뉴밀레니엄 시대 에너지시장의 도전'을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주최국 등 4개국 대통령을 비롯하여 99개국에서 정책결정자, 에너지경영자 및 전문가 3,60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국에서는 이번 총회에 김명규 한국가스공사 사장, 박용택 한국전력기술 사장, 우완식 한국종합에너지 부회장, 한호섭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이사장, 함종칠 협의회 사무국장 등 12명이 참석하였으며, 박용택 사장은 '원자력산업의 현황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총회 최종일에 발표된 '결론과 권고'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영역을 포함하여 전체론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요구하였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에너지의 역할에 대한 교육, 개도국의 능력배양, 그리고 일반국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개선도 역시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정부, 규제기관, 에너지기업체 및 소비자 등이 공동 노력함으로써, 에너지개발이 전인류를 위해 기여하고 평화를 위한 진정한 촉매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de la Rua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개막연설에서 "모두를 위한 현대적 에너지서비스의 제공은 지속가능한 개발, 화합 및 평화를 위한 핵심 열쇠"라고 천명하여, "인류를 위한 에너지, 평화를 위한 에너지"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총회 참가자들은 에너지안보를 높이고 전세계적으로 화합을 증진하기 위한 네가지의 핵심과제를 찾아냈는데, ①상용에너지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 20억 인구에게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②세계적 지역적 수준에서 정치적 법적인 안정성을 제고하고; ③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이용 및 재생가능에너지 등이 포함된 모든 에너지옵션을 개방하고; ④경쟁과 기술보급을 통한 효율 향상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번 총회에서 주로 논의된 이슈로는

- ① 무역과 지역통합을 포함하는 시장개혁
- ② 특히 시설과 수송의 병목현상을 다루기 위한 적절한 규제와 제도
- ③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에너지 옵션을 개방
- ④ 기술과 기초연구, 능력배양 및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
- ⑤ 국지적, 지역적 및 지구적 환경목표
- ⑥ 윤리와 인간존엄성의 장려 등이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9월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 영향으로 평화를 위한 에너지가 강조되었으며, 세계 및 지역에너지시장의 도전과제와 캘리포니아 전력사태 등 현안문제에 대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하여 기초강연 및 패널토의를 가졌다.

또한 회원국에서 사전 제출하여 선정된 100여편의 논문발표와 지난 3년간 WEC가 수행한 연구조사 보고서가 발표, 에너지전시회 개최, 학생프로그램, 에너지시설 방문, 문화행사 등이 다양하게 개최되었다.

2001년도 WEC 집행이사회도 함께 열려

- 향후 3년간 12개 프로젝트 연구조사사업 채택 -

총회에 앞서 10. 20에 개최된 2001년도 집행이사회에서는 WEC의 제반사업 및 운영에 대한 논의와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먼저 '에너지산업의 변화요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안제시를 위해 12개 프로젝트를 향후 3년간의 연구조사사업으로 채택하였다.

이번 총회를 끝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WEC의 장에는 필리핀의 Rosario씨가 취임하였으며, 연구 및 기획 2개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새로이 지명되었으며, 한국에서는 류지철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가 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2004년까지 3년간 활동하게 되었다.

현재 WEC 회원국은 레바논과 그루지아가 신규 가입하고 말레이시아가 탈퇴하여 총 95개국이 되었으며, 2002년도 회원국 연회비는 물가인상률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2%가 인상되었다. 한국은 2002년에 30,500파운드를 부담해야 한다.

2003년도 집행이사회 개최지로 우크라이나 키예프가 결정되었으며, 2002(10월)년도는 이미 이집트 카이로로 예정되어 있고, 2004년도 제 19차 총회 및 집행이사회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릴 예정이다.

1998년 제17차 총회에서 처음 시작된 WEC에너지상 'Global Energy Award'는 프랑스의 M. Boiteux씨가 국제에너지계와 WEC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2회 수상자가 되는 영광을 가졌다. 그는 1987

년 서울 집행이사회 당시 WEC 총재 자격으로 서울을 방문한 바 있다.

WEC 총회는 3년마다 개최되며, 민간 국제기구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행사로서 정부 정책결정자, 업계 경영자, 금융 법률 연구 언론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에너지산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흐름을 소개하고, 종합적이고 균형된 장기 전망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박람회를 동시 개최하여 기술발전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한국에너지협의회에서는 이번 총회에서 발표된 연설문, 발표논문, 연구조사보고서 등 수백편의 각종 자료를 국내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다. 2004년 9월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될 다음 총회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 될 것이며, 2007년 총회는 캐나다가 유치신청 중이다.

